

## 膀胱의 上下口 有無 논쟁에 대한 考察

<sup>1</sup>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sup>2</sup>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解剖學教室

<sup>3</sup>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白裕相<sup>1</sup> · 丁赫相<sup>2</sup> · 金度勳<sup>3</sup> \*

### A Study on the Academic Discussion on the Presence of Upper and Lower Gates of Urinary Bladder

Baik Yousang<sup>1</sup> · Jung Hyuksang<sup>2</sup> · Kim Dohoon<sup>3</sup> \*

<sup>1</sup>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p>2</sup>Dept. of Anatom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up>3</sup>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The paper's objective is to study into the books dealing in the debate surrounding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urinary bladder's upper gate and lower gate, a debate that ensured since the publication of *Huangdineijing*.

**Methods** : *Sikuquanshu* and *Zhongyishijia* databases were searched to collect related materials, and these materials were reviewed to get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debate.

**Results** : The upper gates of urinary bladder was first mentioned in *Nanjing*. Since then, Wanglu's *Yijingsuhuiji* asserted that the upper gate exists while the lower didn't, but many argued after the dawning of Ming Dynasty that the upper doesn't exist while the lower does. Additionally, some urged in relation to the assertion of the nonexistence of upper gate that water liquid pervades into the urinary bladder through sebaceous membrane or oil net.

**Conclusions** : Behind the debate between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upper and lower gates in urinary bladder is the theory of qi transformation. Even the anatomical knowledge of urinary bladder was submitted as an evidence. In general, the debate developed depending on how the differences between *Huangdineijing's* osmotic opinion and *Nanjing's* existence of the upper gate were perceived.

**Key Words** : Urinary bladder, Upper gate, Lower gate, Medical argument

## I. 序 論

『黃帝內經』의 형성 이후 『難經』이 저작된 시기부터 이미 膀胱 上口, 下口の 有無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이후 有上口無下口說, 無上口有下口說, 上下皆有口說 등이 세상에 유행하였다. 그 가운데 실제 明清代 이후로는 주로 無上口有下口說이 많은 醫家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른바 膀胱 上下口有無 논쟁은 단순히 膀胱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인식 문제가 그 본질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津液 또는 소변이 어떻게 생성되어 방광까지 도달하는지, 그 과정에서 氣化 작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津液을 갈무리하는 膀胱의 기능이 우리 몸 전체의 생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등의 문제들이 그것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역사적으로 膀胱 上下口有無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膀胱 上下口有無 논쟁에 대한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趙建生의 ‘對中醫腎臟膀胱解剖的再認識’<sup>1)</sup>에서는 해당 논쟁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가 간략하고 주로 해부학적 특성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張效霞의 박사논문인 ‘臟腑功能辨析’<sup>2)</sup>에서는 여러 장부의 기능들을 열거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膀胱과 관련된 上下口の 有無, 津液 또는 尿液의 생성, 氣化 작용의 특징들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하여 밝히고 있다. 단 膀胱의 上下口有無 논쟁 관련 문헌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사와 역사적 맥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같은 저자의 ‘從尿液的生成論膀胱與胞的關係’<sup>3)</sup>는 위의 연구 성과를 요

약하면서 주로 膀胱과 胞의 관계에 대하여 집중한 것으로 膀胱의 上下口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흐름에 대한 분석이 다소 소략하다. 이상의 연구들 이외에 膀胱 上下口有無 논쟁 관련 문헌자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四庫全書<sup>4)</sup> 및 中醫世家DB<sup>5)</sup> 검색을 통하여 膀胱의 上下口有無 관련 문헌들을 검색 수집하고 이를 선별 분석하여 관련 논쟁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고찰해 보았다. 三焦의 여러 기능과 津液의 생성과정, 氣化작용의 특징들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주로 膀胱의 上下口有無 논쟁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한하여 같이 언급함으로써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膀胱의 上下口有無 논쟁을 둘러싼 의학적 관점이나 학설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임상 치료에서도 어느 정도 그 방향과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은 본 논문에서 고찰한 역사적 맥락과 배경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후속 연구로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II. 本 論

### 1. 膀胱上口說

#### 1) 難經의 膀胱上口說

『黃帝內經』에는 膀胱의 上口, 下口の 구조에 대한 언급이 없고 『難經·三十一難』에서 下焦의 위치와 기능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膀胱의 上口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단 膀胱下口の 有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참고로 『難經』에서는 膀胱의 무게, 크기, 부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서<sup>6)</sup> 당시에 이미 膀胱의 해부학적 구조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 Kim Dohoon. 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Tel : +82-31-750-5422

Email : chulian@gachon.ac.kr

Received(2 May 2017), Revised(12 May 2017),

Accepted(16 May 2017)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3S1A5B6044031)

1) 趙建生. 對中醫腎臟膀胱解剖的再認識. 中國中醫藥信息雜誌. 2011. 18(9). pp.3-5.

2) 張效霞. 臟腑功能辨析. 山東中醫藥大學. 2006. pp.24-34.

3) 張效霞. 從尿液的生成論膀胱與胞的關係. 江西中醫學院學報. 2008. 20(2). pp.5-8.

4)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7.

5) 中醫世家. 2004. [Cited 2017 Apr 20]; Available from: URL: http://www.zysj.com.cn

6) 呂廣注. 難經集注.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9. p.38. “四十二難曰... 膀胱重九兩二錢, 縱廣九寸, 盛溺九升九合.”

下焦者, 當膀胱上口, 主分別清濁, 主出而不內, 以傳導也, 其治在齊下一寸.<sup>7)</sup>

『靈樞·營衛生會』에는 下焦의 기능과 膀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膀胱上口的 표현은 없으나 下焦에서 별도로 汁이 스며나와[泌] 膀胱으로 滲入된다고 하였다.

黃帝曰願聞下焦之所出. 岐伯答曰下焦者, 別迴腸, 注於膀胱, 而滲入焉. 故水穀者, 常并居於胃中, 成糟粕而俱下於大腸, 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焉.<sup>8)</sup>

『黃帝內經』에서 말하는 濟泌別汁이 『難經』에서 말한 下焦의 分別清濁과 완전히 동일한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難經』에서 말한 膀胱上口를 통하여 무엇이 어떠한 방식으로 膀胱으로 흘러 들어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후의 『黃帝內經太素』에서는 『難經』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sup>9)</sup>, 「營衛氣·營衛氣別」에서는 이에 더하여 “此下焦處也, 濟泌別汁, 循下焦滲入膀胱, 此下焦氣液也. 膀胱, 尿脬也.”<sup>10)</sup>라고 하여 下焦에서 氣液으로 유통되다가 膀胱으로 滲入되는 것으로 보았다.

## 2) 小腸의 分別清濁 기능과 膀胱上口說

下焦에서 濟泌別汁하는 것을 小腸이 分別清濁하여 小便을 생성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것은 후대이다. 『內經』에는 小腸의 소변 생성에 대한 초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靈樞·經脈』에서 小腸手太陽之脈을 설명하면서 ‘是主液所生病者’<sup>11)</sup>라

하였다<sup>12)</sup>. 또한 『諸病源候論·虛勞小便難候』에서는 “膀胱, 津液之腑, 腎主水, 二經共爲表裏. 水行於小腸, 入於胞而爲溲便.”<sup>13)</sup>라고 하여 水가 小腸으로 갔다가 다시 胞로 들어가 소변이 된다고 하였는데 分別清濁에 대한 언급은 없다.

北宋대에 저작된 것으로 보이는 『道藏·修真十書·雜著捷徑』에는 煙蘿圖에 부가된 「朱提點內境論」에서 “小腸下口曰關門, 泌別而水入膀胱, 其穢渣則入大腸.”<sup>14)</sup>라고 하여 小腸下口인 關門에서 별도로 水液을 짜내서[泌] 그것이 膀胱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1341년 간행된 滑伯仁의 『十四經發揮·十四經脈氣所發』에서는 “當臍上一寸水分穴<sup>15)</sup>之處, 小腸下口, 乃膀胱上際也, 水液由是滲入焉.”<sup>16)</sup>이라 하여 膀胱上口라는 용어 대신 膀胱의 위쪽 경계인 ‘上際’라고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水液이 스며들어간다고 하였다. 1406년에 간행된 朱櫛의 『普濟方·方脈總論·五常大論』에서도 關門에서 분별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水液이 膀胱上口로 스며들어간다고 하여 『內經』과 『難經』의 내용을 종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難經云大腸小腸會爲關門, 言關約水穀, 從其別者

7) 呂廣 注. 難經集注.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9. p.32.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20.

9) 「經脈之一·經脈連環」(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26.)과 「營衛氣·營衛氣別」(上揭書. 234.)에서 “下焦在齊下, 當膀胱上口, 主分別清濁, 主出而不內, 其理在齊下一寸.”이라고 하였다.

10)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236.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81.

12) 大腸手陽明之脈의 설명에서는 ‘是主津液所生病者’라 하였는데 『靈樞·決氣』에서 “腠理發泄, 汗出溱溱, 是謂津... 穀入氣滿, 淖澤注於骨, 骨屬屈伸, 洩澤補益腦髓, 皮膚潤澤, 是謂液.”(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68)이라 하여 液이 津에 비하여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骨髓를 補益하는 것으로 보았다.

13) 丁光迪.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26.

14) 上海書店. 道藏(4). 北京. 文物出版社. 1988. p.690 : 小腸爲受盛之官, 化物出焉. 凡胃中腐熟水穀, 其氣自胃之上口曰賁門, 傳於肺, 播於諸脈, 其穢滓自胃之下口曰幽門, 傳入於小腸. 小腸下口曰關門, 泌別而水入膀胱, 其穢渣則入大腸. 大腸以其四屈而受小腸之穀, 以虛受水, 爲津液之府. 故云膀胱者, 胞之室也, 膀胱不利爲癃, 不約爲遺溺.

15) 周揚俊. 金匱玉函經二注. 中醫世家. 2004 [Cited 2017 Apr 20]; Available from: URL: <http://www.zysj.com.cn/ilunshuji/fengshijinnangmilu/342-27-3.html> : 膀胱上口 또는 膀胱上際의 위치에 대해서 1687년에 周揚俊이 지은 『金匱玉函經二注』에서 臍中の兩腎間으로 보기도 하였다.

16) 滑伯仁. 校註十四經發揮. 上海. 上海衛生出版社. 1935. p.40. “膀胱重九兩二銖, 縱廣九寸, 居腎下之前, 大腸之側. 當臍上一寸水分穴之處, 小腸下口, 乃膀胱上際也. 水液由是滲入焉.”

也。其穀自小腸承受於關門，以分別也。其水則滲灌入於膀胱上口，而為洩便。若穀之滓穢則自關門，而傳道於大腸，故曰下焦在膀胱上口，以分別清濁也。<sup>17)</sup>

또한 1613년에 간행된 『圖書編』에는宋代楊介의『存眞環中圖』로부터流傳된『華陀內照圖』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小腸下口の關門로부터水液이分泌되어膀胱上口로滲入되어 소변이 생성된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sup>18)</sup>, 실제 해부를 통하여 얻어진 지식이 그림으로 기록되기 시작한北宋대에 이미 이러한 주장이 널리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 2. 膀胱의 有上口無下口說

元대의王履는 1368년에 간행한『醫經溯回集·小便原委論』에서“有上口而無下口，津液既盛於胞，無由自出，必因乎氣化，而後能漸浸潤於胞外，積於胞下之空處，遂為溺以出於前陰也。”<sup>19)</sup>라고 하여膀胱의 有上口無下口說을 설명하였다. 당시에 有上口無下口說이 이미 있었으나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 다.

王履는 소변이 생성될 때 下焦에서膀胱으로 그대로 스며들어오는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 脾, 肺의 運化 과정을 거쳐서膀胱으로 내려오는지를 묻는 或者의 질문에 대하여<sup>20)</sup>, 소변은 기본적으로 水의 성

질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상승할 수 없고 氣의 先導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氣와 水의 관계를 강조하였다<sup>21)</sup>. 이 과정에서膀胱 속에 별도로 자리 잡은 胞가 수렴된 津液을 담는다고 하였다.

雖然膀胱固曰津液之府，至於受盛津液，則又有胞而居膀胱之中焉。故素問曰，胞移熱於膀胱<sup>22)</sup>。靈樞經曰，膀胱之胞薄以濡<sup>23)</sup>。類纂<sup>24)</sup>曰，膀胱者，胞之室，且夫胞之居於膀胱也。素問所謂膀胱津液藏焉者，蓋舉膀胱以該胞也。<sup>25)</sup>

王履가膀胱下口가 없다고 한 이유는 바로 구조적으로 胞와膀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胞는子宮인女子胞나 혹은心包와 통용하는 胞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黃帝內經』 이후에 오준보의 뜻으로 쓰인 脬와 같은 용어이다<sup>26)</sup>. 王履는『素問·氣厥論』에서“胞移熱於膀胱”이라 하고『靈樞·五味論』에서‘膀胱之胞’라 하여膀胱과 胞를 분리하고 있는 듯한 것, 『類纂』에서“膀胱者，胞之

即泌別之水液，滲入膀胱以出者也，素問則曰飲入於胃，遊溢精氣，上輸於脾，脾氣散精，上歸於肺，通調水道，下輸膀胱，則小便又似水飲精微之氣上升，脾肺運化而後成者也，彼此不同，將何所憑乎。”

17) 朱橚. 普濟方(1-1). 서울. 翰成社. 1981. p.6.

18) 章潢. 圖書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17. 「五臟六腑」“凡胃中腐熟水穀，其滓穢自胃之下口，傳入於小腸上口，自小腸下口，泌別而水入膀胱上口，其滓穢傳入大腸上口，與今所繪藏象同。”

章潢. 圖書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19. 「大腸小腸會門」“扁鵲曰大腸小腸會門燕爲關處隔，言關約。水穀從其泌別也。其水穀自小腸承受於關門，以分別也。其水則滲灌入於膀胱上口，而爲洩便。若穀之滓穢則自關門，而傳道於大腸，故曰下焦者，在膀胱上口，主分別有清濁也。”

19) 王履. 醫經溯回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p.74-75.

20) 王履. 醫經溯回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p.74-75. “或問余曰靈樞經云水穀者常並居胃中，成糟粕而俱下於大腸，而成下焦，滲而俱下，濟泌別汁，循下焦而滲入膀胱焉。王冰曰水液自回腸，泌別汁，滲入膀胱之中，胞氣化之而爲溺，以泄出也。楊介云水穀自小腸盛受於關門，以分別也，其水則滲灌入於膀胱上口，而爲洩便。詳已上三說則小便

21) 王履. 醫經溯回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p.74-75. “余曰憑夫理耳，且夫洩溺者，果何物耶。水而已矣，水之下流，其性則然也。故飲入於胃，其精氣雖上升，其飲之本體固不能上升也。既不能上升則豈可謂小便獨爲氣化所成者哉。惟其不能上升者，必有待於能上升者爲之先導，故素問又曰膀胱者，津液藏焉，氣化則能出矣。且水者，氣之子，氣者，水之母，氣行則水行，氣滯則水滯。或者又謂小便純由泌別，不由運化，蓋不明此理故也。”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40.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70.

24) 『類纂』은 南宋대에 周守忠이 간행하여 후대에『養生類纂』이라 불린『類纂諸家養生至寶』으로 추정되나 현재 전해지는 원문에는“膀胱者，胞之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진 北宋의 朱肱이 저술한『內外二境圖』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25) 王履. 醫經溯回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p.74-75.

26) 『內經』에서 胞의 의미를膀胱, 心包, 子宮의 3가지로 보았다. 金棟. 內經胞字淺析. 河北中醫. 1992. 14(5). pp.40-41.

室.”이라고 한 것 등을 근거로 膀胱과 胞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았다.

王履는 우선 胞에서 津液을 저장하고 이후에 氣化를 통하여 津液이 胞 밖으로 스며나와 膀胱 아래의 빈 공간에 모여서 소변이 된다고 보았다. 일반적인 津液과 배설되는 小便이 각각 저장되는 것을 구분하고, 氣化를 통하여 津液이 小便으로 변화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胞 아래 빈 곳에 소변이 모여서 가득 차면뇨의를 느끼게 되고 이때 일시에 다량의 소변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若曰胞下無空處，則人溺急時至廁，安能即出乎。夫惟積滿胞下空處，而不可再容，故急，急則至廁即出矣.<sup>27)</sup>

胞와 膀胱을 구분하여 본 것은 1308년에 王好古가 간행한 『此事難知·問臟腑有幾』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王冰의 『黃帝內經』 注釋<sup>28)</sup>과 朱肱의 『內外二境圖』<sup>29)</sup>의 내용을 근거로 인용하고 있다.

經曰胞移熱於膀胱則癢溺血，又云胞痺者，少腹膀胱按之內痛者，若沃以湯，注云膀胱胞內居之。內外二境圖云膀胱者，胞之室也。以是知爲十三藏府矣.<sup>30)</sup>

이와 같이 王履는 膀胱과 胞가 다르다는 說에 근

거하여 有上口無下口說을 설명하였는데, “或言胞有下口，而無上口，或言胞上下皆有口，或言胞有小竅而爲注泄之路，不亦妄歟.”<sup>31)</sup>라고 하여 이미 당시에 膀胱 또는 胞의 上下口에 관한 여러 학설이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膀胱에 저장된 소변이 외부 생식기 부근의 어떠한 구멍을 통하여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王履가 몰랐을 리는 없고, 단지 氣化를 통하여 胞에서 水液이 스며나와 膀胱 하부에 고여 소변이 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胞가 주머니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有上口無下口說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1575년에 간행된 李樞의 『醫學入門』에서도 膀胱에 出竅가 없고 氣化 작용에 의하여 소변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단 李樞은 胞와 膀胱을 구분하여 보지는 않았으며 膀胱上口的 구체적인 폭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膀胱上口闊二寸半<sup>32)</sup>，而盛溺九升合，中廣九寸正，而重九兩二絰，無出竅也。資氣海以施化，府名津液。

膀胱以虛受水，爲津液之府。有上竅而無下竅，得氣海之氣施化則溲便注瀉，氣海之氣不足則秘隱不痛.<sup>33)</sup>

膀胱과 胞가 다르다고 보는 주장은 清代까지도 일부 이어져 1839년에 간행된 林珮琴의 『類證治裁·二便不通論治』에서도 “胞居膀胱之中，受氣化以藏溺出溺者也。經曰胞移熱於膀胱，蓋膀胱內別有胞，得氣化而爲溺以出也.”<sup>34)</sup>라고 하여 胞가 膀胱 속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 3. 膀胱의 無上口有下口說

#### 1) 無上口有下口說의 출현과 氣化學說의 유행

27) 王履. 醫經溯回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p.74-75.

28) 王冰은 『素問·氣厥論』의 “胞移熱於膀胱，則癢溺血.”에 대한 주석에서 “膀胱爲津液之府，胞爲受納之司。故熱入膀胱，胞中外熱，陰絡內溢，故不得小便而溺血也。正理論曰熱在下焦則溺血，此之謂也.”라고 하였고 『素問·痺論』의 “胞痺者，少腹膀胱，按之內痛，若沃以湯，澀於小便，上爲清涕.”에 대한 주석에서 “膀胱爲津液之府，胞內居之。少腹處膀胱之中，內藏胞器.”라고 하여 膀胱과 胞를 구분하여 보고 있다.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37, 267.

29) 楊介의 『存眞圖』의 내용이 日本 梶原性全의 『頓醫抄』, 『萬安方』 가운데 보존되었으며, 中國에서는 초기에 南宋 朱肱의 『內外二景圖』, 元 孫煥의 『華陀內照圖』, 王好古의 『廣爲大法』 등에 영향을 주었다.

30) 王好古. 此事難知(文淵閣四庫全書745). 臺北. 商務印書館. 1988. p.577.

31) 王履. 醫經溯回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p.74-75.

32) 關은 일반적으로 폭의 정도를 말하므로 여기서는 직경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수치가 해부학에서의 요관이나 『黃帝內經』에 나오는 여러 腸의 직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므로 둘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黃帝內經』에서는 小腸의 둘레를 二寸半이라고 하였다.

33) 李樞.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4.

34) 林珮琴. 類證治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398.

『黃帝內經』에서 膀胱上口에 대한 언급 없이 下焦로부터 別汁이 泌하여 膀胱으로 스며든다고 하였고, 후대의 『十四經發揮』에서는 膀胱上際라고 표현하여 직접적으로 膀胱上口를 말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출처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膀胱의 無上口有下口說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며 王履가 『醫經溯回集』을 간행할 당시에 이미 이 학설이 세상에 퍼져있었음을 알 수 있다. 無上口有下口說의 초점은 上口가 없다는 점에 있으며 그 이유는 주로 氣化를 통하여 水液이 방광으로 스며든다고 본 것에 있다. 下口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도를 통하여 소변이 배출되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無上口有下口說은 有上口說 또는 有上口無下口說에 대한 반박으로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明代 周瑛이 16C초에 저작한 것으로 보이는 『翠渠摘稿·內外象通說』에서는 膀胱에는 출구만 있고 입구가 없다고 하였고 주석에서 膀胱에 上口가 없다는 것은 關門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膀胱이 脂膜을 통하여 大腸과 이어지면서 위로 關門에 접해 있는데 이 脂膜을 통하여 膀胱으로 水液이 삼입하는 것이므로 膀胱上口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복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脂膜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실제 해부학적 관찰이 이미 이 시기 이전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 때 膀胱 근처의 脂膜은 보고 膀胱 상부의 통로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膀胱爲津液府，有脂膜一路循大腸，而上接於關門，穀化爲糞，由大腸正中而下，水化爲溲，循脂膜旁出，滲入膀胱，蓋膀胱有出口無入口，水澹滲而入，其出口屬陰器中，由此順泄而去，三焦爲腎外府，主持諸氣，當於水穀往來之路，上焦當胃上管，主內而不出，中焦當位中管，主腐熟水穀，下焦當膀胱上口(按膀胱無上口，此云爾者，即關門，是也)，主分別清濁。<sup>35)</sup>

비슷한 시기인 1515년에 간행된 虞搏의 『醫學正

35) 周瑛. 翠渠摘稿(文淵閣四庫全書1254). 臺北. 商務印書館. 1988. p.811.

傳·醫學或問』에서는 無上口說을 언급하면서, 水穀 가운데 脾氣에 의하여 肺로 올라간 맑은 것 중에 精한 것은 痰, 진액, 침 등이 되고 그 중 濁한 것이 膀胱으로 내려와 소변이 되는데, 膀胱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은 밖으로 濁氣의 상태로 남아있고 膀胱으로 들어오면 물의 형태로 된다고 하였다<sup>36)</sup>. 대체적으로 氣化運行을 통하여 氣液이 膀胱으로 스며들어온다고 본 것이다. 1556년에 간행된 徐春甫의 『古今醫統大全·膀胱腑形』에서도 膀胱에 上口가 없고 단지 下口만 있어서 위에서 膀胱으로 스며들어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부에서 氣化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水液이 大腸으로 가서 설사가 되고 하부에서 氣化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변이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여 방광의 출입에 모두 氣化가 관여한다고 보았다. 膀胱 上部에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는 說도 역시 틀린 것으로 보았다.

諸書辨膀胱不一，有云有上口無下口，有云上下皆有口，或云有小竅注泄，皆非也。惟有小竅以出溺，上皆由泌別滲入膀胱，其所以入也出也，由於氣之施也。在上之氣不施，則注入大腸而爲泄，在下之氣不施，則急脹澀澀，若不出而爲淋。<sup>37)</sup>

또한 膀胱에서 水液과 소변을 출입하게 만드는 氣化 작용이 三焦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는데, 1617년에 간행된 趙獻可의 『醫貫·內經十二官論』에서는 津液의 나머지가 三焦의 氣化 과정을 통하여 小腸으로부터 膀胱으로 滲入되기 때문에 상부에 구멍이 없다고 하였다. 이때 氣化의 주체를 특히 三焦 가운데 下焦로 보았다.

36) 虞搏. 醫學正傳. 서울. 醫文社. 1972. p.72. “或問飲食同入於胃，而水穀二者何如而分乎。且如膀胱止有下口而無上口，其水固可出，不知從何而入乎。又何其如是之清乎。曰…蓋水穀入胃，其濁者爲渣滓，下出幽門，達大小腸而爲糞，以出於穀道。其清者，倏焉而化爲氣，根據脾氣而上升於肺。其至清而至精者，由肺而灌溉乎四體，而爲汗液津唾，助血脈，益氣力，而爲生生不息之運也。其清中之濁者，下入膀胱而爲溺，以出乎小便耳。其未入而在膀胱之外者，尙爲濁氣，既入而在膀胱之內者，即化爲水。”

37) 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401.

津液之餘，流於下部，得三焦之氣施化，小腸滲出，膀胱滲入，而便溲注泄矣... 膀胱赤白瑩淨，上無所入之竅，止有下口，全假三焦之氣化施行。氣不能化，則閉格不通而爲病矣... 下焦如瀆，其氣起於胃下脘，別回腸，注於膀胱，主出而不納，即州都之官氣化則能出者，下焦化之也。<sup>38)</sup>

1624년에 간행된 張介賓의 『類經』에서는 『素問·靈蘭秘典論』에 대한 주석에서 “膀胱位居最下，三焦水液所歸，是同都會之地，故曰州都之官，津液藏焉。膀胱有下口而無上口，津液之入者爲水，水之化者由氣，有化而入，而後有出，是謂氣化則能出矣。”<sup>39)</sup>라 하여 膀胱의 出入이 모두 氣化 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靈樞·營衛生會』에 대한 주석에서는 “濟，沛同，猶灑灑也。泌，如狹流也。別汁，分別清濁也。別回腸者，謂水穀並居於胃中，傳化於小腸，當臍上一寸水分穴處，糟粕由此別行回腸，從後而出，津液由此別滲膀胱，從前而出。膀胱無上口，故云滲入... 其言上口者，以滲入之處爲言，非眞謂有口也。如果有口，則不言滲入矣。”<sup>40)</sup>이라 하여 膀胱에 上口가 없기 때문에 『內經』에서 ‘滲入’이라 하였으며 이미 만들어진 소변은 前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온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類經』에서는 膀胱과 胞가 다른 것이 아니라 一物이라고 하여<sup>41)</sup> 有上口無下口說을 주장한 王履의 『醫經溯回集』에서 膀胱 속에 胞가 있다는 說을 반박하였다<sup>42)</sup>. 이는 膀胱 속에서 일반적인 津液과 배설되

는 尿液으로 각각 따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또한 張介賓은 『類經圖翼·經絡一·諸部經穴次序』에서 氣化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여러 다른 학설들을 비판하고 있는데<sup>43)</sup>, 李仲梓도 『醫宗必讀』(1637년)에서 이러한 張介賓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sup>44)</sup> 『內經知要』(1642년)에서도 有上口無下口說을 舊說이라 비판하였다<sup>45)</sup>.

膀胱의 出入에 작용하는 氣化의 주체에 대해서 趙獻可의 『醫貫』에서 이미 三焦로 보았는데, 이를 계승하여 清대의 尤怡는 1729년에 간행한 『醫學讀書記·柯氏傷寒論翼辨』에서, 關門이 命門과 통하고 있어서 關門에 이르러서야 命門의 火에 의하여 水液이 薰蒸된 이후 膀胱으로 滲入될 수 있고 이후에 소변을 배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柯琴이 太陽의 氣化에 의하여 소변이 배출된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였다.

膀胱有下口而無上口，處大腸小腸交接之間，即關門也。關門者，泌別水穀之處，氣通命門。人之水穀入胃，以次傳入小腸，斯時雖已熟腐，而清濁猶未分也。至於關門，而得命門之火，薰蒸分布，於是水液滲入膀胱，糟粕下入大腸。入大腸者，以漸而下，入膀胱者，滿而後瀉。柯氏乃謂膀胱有上口而無下口，能入而不能出，必待太陽氣化，而溺始出。非也。<sup>46)</sup>

고 있다.

38)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3-4.

39)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45.

40)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195.

41)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227. “奈何後人不解其意，俱讀爲包，反因經語，遂認膀胱與胞爲二物。故在類纂則曰膀胱者胞之室，王安道則曰膀胱爲津液之府，又有胞居膀胱之室之說，甚屬不經。夫膀胱即脬，膀胱即脬也，焉得復有一物耶。致資後學之疑，莫知所辨，皆見之不眞耳，知者當詳察之。”

42) 1702년에 간행된 『馮氏錦囊秘錄·胎前雜門·轉胞病』에서도 “胞物有三，而字則相同，奈何後人不解其意，或認膀胱與尿胞爲二物。又因《類纂》則曰膀胱者，胞之室。反以子胞與膀胱爲一物，其誤甚矣。夫膀胱即脬，脬即膀胱也。焉得復有一物居於膀胱之內者乎。其以子胞與膀胱爲一物者，試思轉胞下壓膀胱，則小便不通，其胞在上，而膀胱在下，部位各別，而非一物更明矣。”(馮兆張. 馮氏錦囊秘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461.)라 하여 역시 王履의 說을 반박하

43) 張介賓. 類經圖翼.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7. p.80. “膀胱當十九椎，居腎之下，大腸之前，有下口，無上口，當臍上一寸水分穴處爲小腸下口，乃膀胱上際，水液由此別回腸，隨氣泌滲而入，其出其入，皆由氣化。入氣不化則水歸大腸而爲泄瀉，出氣不化則閉塞下竅而爲癰腫。後世諸書有言其有上口無下口，有言上下俱有口者，皆非。”

44) 李仲梓. 醫宗必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p.22-23. “膀胱者，州都之官，津液藏焉，氣化則能出矣。膀胱當十九椎，居腎之下，大腸之前，有下口，無上口，當臍上一寸水分穴處，當小腸下口，乃膀胱之際，水液由此別回腸，隨氣泌滲而下，其出其入，皆由氣化。入氣不化，則水歸大腸而爲泄瀉；出氣不化，則癰閉下竅而爲癰腫。後世諸書，有言其有上口無下口，有言上下有口者，皆非。”

45) 李仲梓. 內經知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34. “膀胱位居卑下，故名州都之官。經曰水穀循下焦，而滲入膀胱。蓋膀胱有下口而無上口，津液之藏者，皆由氣化滲入，然後出焉。舊說膀胱有上口而無下口者，非也。”

46) 尤怡. 醫學讀書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55.

또한 章楠도 『靈素節注類編·營衛經絡總論』에서 “膀胱有下口，而無上口，由下焦相火蒸化其水，而滲入膀胱，滿則變溺，從下口而出，故言循下焦而滲入膀胱焉... 蓋腎居下焦，而先天元陽之氣根於中，出行於三焦，乃名相火，能熟腐水穀，故名焦。”<sup>47)</sup>라 하여 三焦와 관련된 先天元陽의 相火가 氣化를 주도한다고 보았다. 周學海도 『讀醫隨筆』에서 “氣化則能出者，膀胱無上口，必借三焦之氣化，有以轉動之，使之俯仰而傾出也。”<sup>48)</sup>，“下行入於膀胱，而膀胱有下口無上口，仍借三焦之氣化，始能下出，故曰氣化則能出矣。”<sup>49)</sup>라고 하여 三焦의 氣化 작용을 중시하였다.

## 2) 膀胱無上口說과 脂膜 滲入說

한편 膀胱의 無上口的 이유에 대하여 이미 『翠渠摘稿』에서 “膀胱爲津液府，有脂膜一路循大腸，而上接於關門，穀化爲糞，由大腸正中而下，水化爲溲，循脂膜旁出，滲入膀胱。”<sup>50)</sup>이라고 하여 脂膜을 통하여 水液이 滲入되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는데, 翟良이 1628년에 간행한 『經絡滙編』에서도 이를 계승하여 膀胱이 上口가 없는 대신 脂膜을 통하여 水液이 膀胱으로 滲入되어 소변이 된다고 하였다.

小腸下口，乃膀胱之上際也。膀胱有下口，無上口，實與小腸無口相接，惟有脂膜相連。其脂膜包裹膀胱，如綿球之狀，其脂膜與脾之大絡，各臟腑之脂膜俱相聯，所以謂脾之濕氣，亦能滲入膀胱，而化爲溺。但不若脂膜中之絡系，上通於小腸之下口，大腸之上口，相交會處而爲關門者，關約水穀，清濁從此泌別。濁之濁者，傳入大腸，濁之清者，由脂膜之絡系滲入膀胱。膀胱實無上口，所謂有上口者，非也。<sup>51)</sup>

여기서 脾의 濕氣가 脂膜을 통하여 膀胱으로 滲入된다고 한 것이 특이한데, 清代 鄭壽全의 『醫法圓

通』에서도 『內經』에서 말한 ‘脾爲胃行其津液’에 의거하여 “膀胱主溺，與二腸無涉。知非細維其原，在胃陽明爲海，生糟生血，化氣行水之宗。具脾爲胃行津液，脾能行水，由水道達於膀胱，膀胱有下口而無上口，須氣化滲泌而出。今病人小便不利，明是二土失職，中宮少運。”<sup>52)</sup>라고 하여 脾의 運化 작용에 의하여 水液이 膀胱으로 滲入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膀胱으로 脂膜을 통하여 水液이 滲入된다는 주장은 清代에도 이어져서 唐宗海가 『傷寒論淺注補正·讀法』에서 “凡人飲入之水，從腸胃入三焦油網，從油網入膀胱。”<sup>53)</sup>라 하여 油網을 통하여 膀胱으로 들어온다고 하였고, 1864년에 간행한 『血證論·臟腑病機論』에서도 “斥中國不知人有連網，言人飲水入胃，即滲出走連網而下，以滲至膀胱，膀胱上口，即在連網中也。中國醫林改錯一書，亦言水走油網而入膀胱... 與西洋醫法，醫林改錯正合，古之聖人，何嘗不知連網膜膈也哉。按兩腎中一條油膜，爲命門，即是三焦之原。”<sup>54)</sup>이라 하여 膀胱上口는 곧 연결된 網 속에 있다고 하였다. 唐宗海는 비록 膀胱有上口說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油網을 통하여 水液이 스며든다고 하였으므로 無上口說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 또한 『中西彙通醫經精義』에서는 소변의 배출도 丹田의 薰蒸 작용에 의하여 網과 접하고 있는 水道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sup>55)</sup>. 王邦傳는 1891년에 간행한 『脈訣乳海』에서 “由胃小腸相接處幽門，幽門之上有一竅，水飲從此竅散布下焦脂膜之中，由脂膜而滲入膀胱。膀胱無上口，故曰滲入也。”<sup>56)</sup>라고 하였는데, 幽門 위의 한 구멍에서 水飲이 下焦의 脂膜 속으로 퍼진다고 본 것이 특이하다.

- 52) 鄭壽全. 醫法圓通.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p.39.  
53) 陳念祖注, 唐宗海補正. 傷寒論淺注補正(續修四庫全書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446.  
54) 唐宗海. 血證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5.  
55) 唐宗海.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9. “膀胱與連網相接處，即是入水道。子宮在膀胱後，男子名爲丹田。腎陽入丹田，蒸水則化氣上行，膀胱如釜中蓄水，丹田如灶裏添薪。膀胱下口，曲而斜上，以入陰莖，溺能射出者，則又肺氣注射之力也。”  
56) 王邦傳. 脈訣乳海(增補珍本醫書集成5). 臺北. 世界書局. 1962. p.2.

47) 章楠. 靈素節注類編.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67.

48) 周學海. 讀醫隨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4.

49) 周學海. 讀醫隨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09.

50) 周瑛. 翠渠摘稿(文淵閣四庫全書1254). 臺北. 商務印書館. 1988. p.811.

51) 翟良. 經絡全書(經絡滙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2. p.230.

### 3) 無上口有下口說의 유행에 대한 평가

膀胱의 無上口有下口說은 대체로 明代로부터 清代까지 이어져 『醫宗金鑑』<sup>57)</sup>, 『醫經原旨』<sup>58)</sup>, 『瘍醫大全』<sup>59)</sup>, 『醫學實在易』<sup>60)</sup>, 『神灸經綸』<sup>61)</sup> 등등에서 이를 그대로 채용하였다. 清末에 실제 해부를 통하여 저작된 王清任의 『醫林改錯』에서도 無上口有下口說을 주장하였는데, “膀胱有下口無上口, 下口歸玉莖. 精道下孔, 亦歸玉莖. 精道在婦女, 名子宮.”<sup>62)</sup>이라 하여 膀胱의 위에는 上口的 해부학적 구조가 없고 下口는 아래로 이어져 精道와 병행한다고 하였다. 이후 唐宗海는 『六經方證中西通解』에서 中醫에서 膀胱의 無上口有下口說을 주장하고 그것이 氣化에 의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王清任이 『醫林改錯』에서 網油를 통하여 水液이 膀胱으로 들어간다고 한 것은 정확하나 古人들의 有上口說을 훼손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sup>63)</sup>.

余按此說甚爲確切, 惟是詆毀古人, 謂其不曉水道, 而不知唐以後醫, 識多誤解, 而漢以前醫, 則斷無差謬. 蓋唐以後醫, 見剖六畜, 膀胱之上, 全無孔竅, 遂謂膀胱無上口. 抑思膀胱可舒可斂, 其上口在膜與油之中, 極其細密, 滲泌溺液, 浸潤而入, 原非極大之洞隙, 死後則油與膜粘連收縮而不見, 安得謂無上口哉.<sup>64)</sup>

즉, 唐代 이후의 醫家들이 가축을 해부하고 그

膀胱을 본 것에 따라 上口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膀胱上口는 膀胱을 둘러싼 막과 기름덩이 속에 있어서 매우 세밀한 틈을 통하여 水液이 스며들어오는 것이며 죽은 후에는 수축되어 그 틈이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하였다<sup>65)</sup>. 唐宗海는 膀胱上口的 존재를 수긍하면서도 油膜의 작은 틈을 통하여 스며들어오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또한 清末에 서양의학이 도입된 이후 중국에서는 서양의학의 학설을 배척하거나 수용하는 입장이 모두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1904년에 간행된 周伯度的 『本草思辨錄·緒說』에서는, 王清任이 실제 해부하여 관찰한 결과 膀胱의 上口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학에서 上口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腦髓가 知覺을 담당하는 중추신경의 학설에 따라 膀胱이 위로 신경이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중국인들이 서양의학이 들어온 이후 그 학설들에 대하여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그대로 믿기만 하는 것을 비판하였다<sup>66)</sup>.

### 4. 膀胱의 上下皆有口說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醫學入門』에서는 膀胱에 上竅는 있으나 出竅인 下竅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宋代 楊介가 실제 해부를 바탕으로 1113년에 간행한 『存眞環中圖』로부터 流傳되어 내려 온 『華陀內照圖』 계열의 문헌을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인용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命門系 관련 조문에서 “命門系, 曲屈下行, 接兩腎之系,

57) 吳謙. 醫宗金鑑.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1076.

58) 薛雪. 醫經原旨(續修四庫全書98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493.

59) 顧世澄. 瘍醫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p.159-160.

60) 陳念祖. 醫學實在易注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8. p.3.

61) 王大成. 神灸經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70.

62) 王清任. 醫林改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8.

63) 張效震. 從尿液的生成論膀胱與胞的關係. 江西中醫學院學報. 2008. 20(2). p.7. “中醫謂膀胱有下口, 無上口, 全憑氣化以入, 真是癡人說夢. 王清任醫林改錯亦謂水從網油而傳入膀胱, 觀剖牲畜, 網油內有水鈴鑄, 即是水從此過之故也. 余按此說甚爲確切, 惟是詆毀古人, 謂其不曉水道, 而不知唐以後醫, 識多誤解, 而漢以前醫, 則斷無差謬.”

64) 張效震. 從尿液的生成論膀胱與胞的關係. 江西中醫學院學報. 2008. 20(2). p.7.

65) 塗蔚生的 『推拿扶微』에서는 반대로 “前人見牲畜已死, 膀胱收縮莫辨, 遂謂其有上口無下口, 是不知其上口已在下焦油膜連網之中也.”라고 하여 같은 근거로 有上口無下口說을 비판하였다. (塗蔚生. 推拿扶微. 中醫世家. 2004 [Cited 2017 Apr 20]; Available from: URL: <http://www.zysj.com.cn/lilunshuji/tuinajuewei/684-8-1.html>)

66) 周伯度. 本草思辨錄(增補珍本醫書集成4). 臺北. 世界書局. 1962. p.8. “內科理法云肺與皮膚出氣多則溺少, 出氣少則溺多. 此即內經氣化斯出之理, 膀胱惟無上口, 所以溺出必待氣化. 乃西醫言有上口, 而王清任曾譎視者, 又言無上口, 其殆有上口亦在包西醫腦髓可知覺之說, 行於中國, 而中國人不察, 信之者眾. 試更論之, 腎精生髓, 由脊入腦, 猶草木果實之結於頂上. 余考西醫每雲腦筋從某來者, 多是上來至下, 以本爲末, 以末爲本, 其弊實由於是.”

下尾間，附廣腸之右。通二陰之間，前與膀胱下口，於溲溺之處相竝而出，乃是精氣所泄之道也。”<sup>67)</sup>라고 하여膀胱下口를 언급하고 있다. 李梴이膀胱無下口說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해부 관찰에 의한膀胱下口의 존재는 인정하였던 것이다. 또한 1613년에 간행된 『圖書編』에서도 『華陀內照圖』의 내용을 인용하면서膀胱의上口과下口를 모두 설명하고 있다<sup>68)</sup>. 이것이 비록 본격적으로膀胱의上下皆有口說을 주장한 것은 아니나膀胱上口와 함께 소변이 요도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下口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C말에 간행된 唐大烈의 『吳醫彙講·膀胱上口論』을 보면, 沈實夫가膀胱의上下에 모두 구멍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膀胱上口，靈素未言有無，後世聚訟紛紜，或言有上口而無下口者，乃以氣化則能出之句而誤會也。若無下口，焉得氣一化則遂若此通利哉。是無下口之說不必論矣。”<sup>69)</sup>라 하여 만약下口가 없다면氣化 작용만으로 소변을 通利할 수 없으므로 無下口說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고, 동시에 張介賓, 李仲梓 등이 주장한 無上口說도 交腸症의 예를 들어 반박하였다.

或言有下口而無上口者，張景岳李士材俱主是說。因景岳士材之書，近世風行海內，故人皆以爲無上口矣。第無上口，則交腸之易位而出者，糞從何處入於膀胱乎。

67) 李梴.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76.

68) 章潢. 圖書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17. 「五臟六腑」 “凡胃中腐熟水穀，其滓穢自胃之下口，傳入於小腸上口，自小腸下口，泌別而水入膀胱上口，其滓穢傳入大腸上口，與今所繪藏象同。”

章潢. 圖書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19. 「大腸小腸會門」 “扁鵲曰大腸小腸會門燕爲闌處隔，言闌約，水穀從其泌別也，其水穀自小腸承受於闌門，以分別也，其水則滲灌入於膀胱上口，而爲溲便，若穀之滓穢，則自闌門，而傳道於大腸。故曰下焦者，在膀胱上口，主分別有清濁也。”

章潢. 圖書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20. 「命門」 “今視藏象，則所謂男子藏精，女子繫胞者，其原始自心之下系貫七節之傍者，其系曲屈下行，接兩腎之系，下尾間，附膀胱之右，通二陰之間，前與膀胱下口於溲溺之處，相竝而出，乃是精氣所泄之道也。”

69) 唐笠山. 吳醫彙講.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p.57-58.

張三錫以爲上下俱有口者是矣，但語焉而未詳也。<sup>70)</sup>

또한膀胱의上口는 평소에는 닫혀 있어서水液이膀胱으로 들어오는 것은三焦의氣化에 의한 것이며上口를 통하여 직접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만약上口가氣虛나熱邪에 의하여 잘못 열리게 되면清濁이不分하게 되어대변이小腸下口로부터膀胱上口로 들어와交腸症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sup>71)</sup>. 같은 내용이 1897년에 간행된 陸以湑의 『冷廬醫話』에도 소개되어 있다<sup>72)</sup>. 참고로 1609년에 간행된 張三錫의 『醫學六要·淋閉』를 보면 無上口有下口說을 주장하고 있으나<sup>73)</sup>膀胱의 그림은上口,下口를 모두 그려서 표현하고 있으나<sup>74)</sup>沈實夫가 이것을 보고 張三錫이上下에 모두 구멍이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고 여긴 것이다. 종합해 보면沈實夫의上下皆有口說은上口的 존재를 인정하였으나

70) 唐笠山. 吳醫彙講.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p.57-58.

71) 唐笠山. 吳醫彙講.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p.57-58. “夫水道既從小腸下口以入膀胱，則清濁不分者，何獨並於大腸之水瀉，人所常有，而糞入膀胱之交腸，患者甚少乎。諱思其故，必系膀胱有上口而常閉，乃爲平人之常，水之入於膀胱者，仍是三焦化入，而非從上口以入者也。或腑氣大虛，則力乏而竅不能閉，或邪熱傷腑，則熱主開泄而竅亦不能閉，以致糞從小腸下口入於膀胱上口，並隨小便而出矣。譬如人身之外竅，亦有常閉而不通者，臍孔與兩耳兩乳，無故則常閉而不開，有故則或出膿血，或通乳汁，膀胱之上口，亦可以類推矣。世人皆以爲無上口者，一則宗景岳士材之書，一則見獸脬之止有下口也。”

72) 陸以湑. 冷廬醫話.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p.141-142. 「形体」 “膀胱或謂有上口無下口，或謂有下口無上口，張景岳李士材亦主此說，人皆信之，而不知其非也。若無上下口，何以有交腸之病乎。吳縣沈實夫果之，獨謂上下皆有口，而上口常閉，水之入於膀胱，仍是三焦化入，而非從上口以入。若腑氣大虛，則力乏而竅不能閉，或邪熱傷腑，則主開泄而竅亦不能閉，甚至有交腸之病，糞從小腸下口入膀胱上口，並隨小便而出，譬如人身之外竅，臍孔與兩耳兩乳，亦常閉而不開，有故則或出膿血，或通乳汁，膀胱之上口亦可以類推矣。此論最爲近似。”

73) 張三錫. 醫學六要.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p.223. “內經曰飲入於胃，遊溢精氣，上輸於脾，脾氣散精，上歸於肺，通調水道，下輸膀胱。夫膀胱主足太陽，寒水之化，其體有下口而無上口也。長生在申，西方肺金以爲之母，而資其化也。肺金清肅，則水道通調而滲澆於下竅。然肺金又藉脾土健旺，以資化源，而清氣得以上升，使歸於肺而輸下也。”

74) 張三錫. 醫學六要.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p.31.

평소에는 上口가 막혀있고 三焦의 氣化에 의한 水液은 滲入은 이를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 無上口說의 의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Ⅲ. 考 察

膀胱이 津液 또는 소변을 저장하였다가 배설하는 기관이므로 분명히 출입의 통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膀胱에 지금의 요도(urethra)에 해당하는 下口가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소변이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기록은 많은 한의학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婦人病의 轉胞症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名醫類案』에서 “故胎壓膀胱下口, 所以溺不得出.”<sup>75)</sup>이라 하였고 『證治準繩』에서도 “一孕婦小便不通, 脈細弱, 乃氣血俱虛, 胎壓膀胱下口.”<sup>76)</sup>, “故胎重墜下壓, 住膀胱下口, 因此溺不得出.”<sup>77)</sup>이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膀胱의 上下口 有無에 대한 논란은 위와 같은 보편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왜 無上口 또는 無下口의 說을 주장하게 되었는가의 배경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

우선 膀胱의 無上口說을 살펴보면, 『黃帝內經』에는 膀胱上口的 언급이 없이 단지 汁이 膀胱으로 滲入한다고 하였고 『難經』에서는 膀胱上口를 언급하면서 滲入의 표현을 쓰지 않은 차이점에서부터 관련 논란이 근본적으로 발단한 것이다. 『難經』에서 “下焦者, 當膀胱上口.”라고 명시한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三十一難』에서 “上焦者, 在心下, 下膈, 在胃上口, 主內而不出... 中焦者, 在胃中脘, 不上不下, 主腐熱水穀.”<sup>78)</sup> 등으로 上焦와 中焦의 위치를 명시한 것과 병행하여 下焦의 위치를 확정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靈樞·營衛生會』에서도 上焦는 胃上口에서 출하고 中焦는 上焦의 뒤에서 출한다고만 하였고 下焦의 위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sup>79)</sup>.

膀胱의 無上口說이 대두된 큰 이유는 『靈樞·營衛生會』에서 ‘濟泌別汁’과 ‘滲入’이라고 표현한 것을 『素問·靈蘭秘典論』에서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sup>80)</sup>라고 한 것과 결부하여 水液이 氣化를 통하여 氣의 형태로 膀胱으로 스며든다고 본 때문이다. 즉, 『內經』에서 말한 ‘氣化則能出’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出의 전단계인 入의 과정도 氣化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본 것인데, 『黃帝內經太素』에서 “濟泌別汁, 循下焦滲入膀胱, 此下焦氣液也.”<sup>81)</sup>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의미이며 『醫學正傳』에서도 “其未入而在膀胱之外者, 尙爲濁氣, 既入而在膀胱之內者, 即化爲水.”<sup>82)</sup>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張介賓도 『類經』에서 “津液之入者爲水, 水之化者由氣, 有化而入, 而後有出.”<sup>83)</sup>이라 하여 氣化 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無上口說을 주장한 다수의 醫家들은 氣化 작용을 강조하면서 『難經』에서 말한 膀胱有上口說은 잘못되었다고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氣化學說은 『內經』에서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膀胱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 있으며 한편 우리몸 전체에서 氣가 생성되고 운행하는 것에 대한 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膀胱의 氣化에 대해서는 주로 氣化하여 出하는 대상이 小便, 津液, 汗 등인지에 대한 논란이 역대로 있었다<sup>84)</sup>. 또한 이때 氣化의 주체가 膀胱 자체인지 아니면 腎이나 三焦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특히 여기서 三焦의 氣化 작용은 우리몸 전체의 氣 生成 運化와 관련이 있다<sup>85)</sup>.

膀胱에서 津液의 出入을 담당하는 氣化 작용의 주체에 대하여 趙獻可는 『醫貫』에서 三焦가 주관한다고 하였고 清代 『醫學讀書記』와 『靈素節注類編』에

75) 江瓊. 名醫類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32.  
76) 王肯堂. 證治準繩(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591.  
77) 王肯堂. 證治準繩(六).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5. p.344.  
78) 呂廣 等注. 難經集注.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9. p.32.

7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20.  
8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4.  
81)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236.  
82) 虞搏. 醫學正傳. 서울. 醫文社. 1972. p.72.  
83)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45.  
84) 張效霞. 臟腑功能辨析. 山東中醫藥大學. 2006. pp.29-30.  
85) 張效霞. 臟腑功能辨析. 山東中醫藥大學. 2006. pp.30-34.

서는 각각 命門之火와 相火로서 설명하였다. 膀胱의 無上口說이 이미 元代에 있었으나 明代에 와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당시 命門三焦說과 相火說의 발전 및 그에 따른 氣化學說의 유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黃帝內經』을 살펴보면 津液을 膀胱으로 수렴하기 위한 과정에서 脾와 肺의 運化 작용이 관여하는데 下焦 또는 小腸下口인 關門과 膀胱 사이에 이러한 運化 과정을 거치는지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醫經溯回集』, 『醫學正傳』, 『醫學六要』, 『翠渠摘稿』, 『醫法圓通』, 『中西彙通醫經精義』 등에서 이러한 脾 또는 肺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膀胱으로 滲入하는 과정에 대하여 『翠渠摘稿』에서 脂膜을 통한다고 하였고, 『經絡滙編』에서도 이를 계승하여 “其脂膜包裹膀胱, 如綿球之狀, 其脂膜與脾之大絡, 各臟腑之脂膜俱相聯.”<sup>86)</sup>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清代의 唐宗海도 비록 無上口說을 비판하였으나 脂膜과 유사한 油網을 통하여 水液이 膀胱으로 滲入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脂膜 또는 油網에 대한 설명은 明代 이후 해부 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膀胱의 無上口說을 더욱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膀胱의 無上口有下口說이 대두된 기타 이유로는 『醫經溯回集』에서 강조한 有上口無下口說에 대한 반발을 들 수 있다. 특히 王履의 有下口說은 胞와 膀胱이 다르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데 『類經』에서 “夫脬即膀胱, 膀胱即脬也, 焉得復有一物耶.”<sup>87)</sup>라 하여 이를 비판하고 있다. 즉, 膀胱의 無上口有下口說을 주장한 후대의 醫家들은 『難經』 이후 유행한 有上口無下口說을 반박하기 위하여 대조적으로 ‘無上口有下口’라는 용어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인데, 이러한 용어의 대조는 膀胱과 膽의 上下口有無 관계에서도 일부 보이고 있다<sup>88)</sup>.

한편 無上口有下口說 확산의 또 다른 배경으로

明清代에 전반적으로 해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는데, 콩팥에서 방광까지 이르는 요관(ureter)은 방광의 뒤쪽에 위치하여 여러 조직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해부 시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sup>89)90)</sup>. 이 때문에 실제 해부를 많이 시행한 王淸任도 膀胱의 上口를 찾지 못하여 『醫林改錯』에 “膀胱有下口無上口, 下口歸玉莖. 精道下孔, 亦歸玉莖.”<sup>91)</sup>이라고 기술한 것이다. 인체 구조에 대한 해부 지식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膀胱의 上口와 下口를 설명하려는 추세가 無上口有下口說의 주장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膀胱의 無上口有下口說이 明代 이후 크게 유행한 것이 비하여 元代 王履의 『醫經溯回集』에서 강조한 有上口無下口說은 李梴이 『醫學入門』에서 수용하였으나 이후 크게 각광받지는 못하였다. 단 膀胱上口說은 小腸의 分別清濁 기능이 점차 강조되면서, 小腸下口인 關門에서 分別이 이루어져 膀胱上口로 水液이 滲入된다고 하여 『黃帝內經』과 『難經』의 내용을 그대로 결합시켜 설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설명은 膀胱上口說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강화시킨 측면이 있다. 또한 清代의 唐宗海는 無上口有下口說의 배경인 氣化說을 비판하면서 油網을 통하여 水液이 膀胱으로 滲入된다고 주장하였는데, “其上口在膜與油之中, 極其細密, 滲泌溺液, 浸潤而入, 原非極大之洞隙, 死後則油與膜粘連收縮而不見, 安得謂無上口哉.”<sup>92)</sup>라 하여 油膜 중에 세밀한 틈이 바로 膀胱上口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膀胱上口說을 견지하면서 水液이 膜을 통하여 滲入되는 설명을 결합한 것이다. 또한 독특하게 膀胱의 上下皆有口說을 주장한 清末의 沈實夫도, 膀胱上口가 있기는 하나 평소에는 단혀있어서 이를 통하지 않고 三焦의 氣化에 의하여 水液이 膀胱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有上口說과 氣化에 의한 滲入說을 절충하

86) 翟良. 經絡全書(經絡滙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2. p.230.

87)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227.

88) 周學霆. 三指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p.22. “足太陽膀胱(有下口而無上口), 足少陽膽(有上口而無下口), 兩腑對照.”

89) 김연섭 외 3인. 인체해부학. 서울. 정문각. 2004. p.741.

90) 膀胱의 형태가 공 모양[氣球]이기 때문에 上口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張效震. 臟腑功能辨析. 山東中醫藥大學. 2006. p.25.)

91) 王淸任. 醫林改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8.

92) 張效震. 從尿液的生成論膀胱與脬的關係. 江西中醫學院學報. 2008. 20(2). p.7.

려는 시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IV. 結 論

역대의 膀胱 上下口有無 논쟁에 대한 문헌 조사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黃帝內經』에서 下焦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汗을 짜내서[泌] 膀胱으로 스며들게[滲入] 만든다고만 하였고, 이후 『難經』에서는 下焦가 膀胱上口에 해당하여 分別청탁을 주관한다고 하여 膀胱에 上口가 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에 의하여 水液이 膀胱으로 스며드는지 아니면 上口的 통로를 통하여 注入되는지의 인식 문제가, 역대로 이어진 膀胱의 上下口有無 논쟁의 발단이 되었다.

2. 膀胱上口說은 『黃帝內經』 이후 小腸下口인 關門에서 分別清濁이 이루어진다는 說이 성립되면서 함께 강조된 측면이 있으며, 元대의 王履는 『醫經溯回集』에서 膀胱 속에 胞가 별도로 위치하여 胞에 저장된 津液이 氣化에 의하여 下口를 통하지 않고 膀胱 아래의 빈 곳으로 스며든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시까지 세간에 유행하던 膀胱의 有上口無下口說을 다시 강조하였다. 이 說은 明代의 『醫學入門』에서 채택되었으나 이후 크게 각광받지는 못하였다.

3. 明代부터 膀胱의 無上口有下口說이 크게 부각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黃帝內經』에서 “氣化則能出”이라고 한 것을 넓게 해석하여 반드시 氣化를 거쳐야 膀胱으로 水液이 들어갈 수 있으며 이때 水의 형태로 上口를 통하여 注入되는 것이 아니라 氣와 유사한 형태로 滲入된다고 하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無上口有下口說의 유행은 明代에 발전한 命門三焦 및 相火學說에서 인체의 氣化 작용을 중시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膀胱의 無上口有下口說은 明清대의 많은 醫家들에게 통설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有上口無下口說에 대한 반발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해부 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脂膜 또는 油網을 통하

여 水液이 방광으로 滲入된다는 주장이 나타났고 실제 해부 시 요관(ureter)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無上口說을 강화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5. 清末에 唐宗海는 水液이 膀胱으로 滲入될 때 통과하는 油網의 작은 틈이 곧 膀胱上口라고 하였고, 上下皆有口說을 주장한 沈實夫도 膀胱上口가 있기는 하나 평소에 닫혀있어서 이를 통하지 않고 滲入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難經』의 有上口說과 『黃帝內經』의 滲入說을 절충한 것이다.

#### References

- Jiang G. Mingyileian.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6.  
江耀. 名醫類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Gu SC. Yangyidaqua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7.  
顧世澄. 瘍醫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 Kim YS et al.. Human Anatomy. Seoul. Jeongmungak. 2004.  
김연섭 외 3人. 인체해부학. 서울. 정문각. 2004.
- Tang LS. Wuyihuijiang.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  
唐笠山. 吳醫匯講.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 Tang ZH. Tangrongchuanxuequanshu.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唐宗海.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Tang ZH. Xuezhenglun.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6.  
唐宗海. 血證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7. Li C. Xinduiyibianzhuyixuerumen. Seoul. Bubin Publishers Co.. 2009.  
李穰.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8. Lin PQ. Leizhengzhica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8.  
林珮琴. 類證治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9. Shanghai Shudian. Daozang. Wenwuchubanshe. 1988.  
上海書店. 道藏(4). 北京. 文物出版社. 1988.
10. Xu CF. Gujinyitongdaquan(shangce).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1.  
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1. Xue X. Yijingyuanzhi(Xuxiusikuquanshu982). Shanghai. Shanghaijiajichubanshe. 2002.  
薛雪. 醫經原旨(續修四庫全書98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12. Lu G annot.. Nanjingjizhu. Shenyang. Yaoning Scientific and Technical Publishers. 1999.  
呂廣. 注. 難經集注.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9.
13. Wu Q. Yuzuanyizongjinjian. Seoul. Bubin Publishers Co. 2006.  
吳謙. 禦纂醫宗金鑑. 서울. 法仁文化社. 2006.
14. Wang KT. Zhengzhizhunsheng(liu). Shanghai. Shanghai Scientific and Technical Publishers. 1995.  
王肯堂. 證治準繩(六).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5.
15. Wang KT. Zhengzhizhunsheng(y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1.  
王肯堂. 證治準繩(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6. Wang DS. Shenjiujinglun. Beijing. Zhongyiyujichubanshe. 2004.  
王大生. 神灸經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17. Wang L. Yijingsuhuij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3.  
王履. 醫經溯回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18. Wang BF. Maijueruhai. (Zengbuzhenbenyishujicheng5). Taipei. Shijieshuju. 1962.  
王邦傳. 脈訣乳海(增補珍本醫書集成5). 臺北. 世界書局. 1962.
19. Wang B ed. and annot.. Xinbianhuangdineijingsuwen. Seoul. Daeseongmunhwasa. 1994.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20. Wang QR. Yilingaicuo.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5.  
王清任. 醫林改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21. Wang HG. Cishinanzhi (Wenyuangesikuquanshu745). Taipei. The Commercial Press. 1988.  
王好古. 此事難知(文淵閣四庫全書745). 臺北. 商務印書館. 1988.
22. Yu T. Yixuezhengchuan. Seoul. Yimunsa. 1972.  
虞搏. 醫學正傳. 서울. 醫文社. 1972.
23. You Y. Yixuedushuj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1.  
尤怡. 醫學讀書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24. Wei ZX. Xumingyileian (Qindingsikuquanshu52). Seoul. Daeseongmunhwasa. 1995.  
魏之琇. 續名醫類案(欽定四庫全書52).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5. Lu YT. Lenglujihua. Shanghai. ShanghaiZhongyixueyuanchubanshe. 1993.  
陸以湑. 冷廬醫話.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26. Li ZZ. Neijingzhiyao.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4.  
李仲梓. 內經知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27. Li ZZ. Yizongbidu. Shanghai. Shanghai Scientific and Technical Publishers. 1987.  
李仲梓. 醫宗必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28. Zhang JB. Leijing. Seoul. Daeseongmunhwasa. 1982.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29. Zhang JB. Leijingtuyi. Taipei. Wen Kuang Publishing Company. 1977.  
張介賓. 類經圖翼.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7.
30. Zhang N. Lingsujiezhuileibian. Hangzhou. Zhejiang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ing House. 1986.  
章楠. 靈素節注類編.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31. Zhang SX. Yixueliuyao. Shanghai. Shanghai Scientific and Technical Publishers. 2005.  
張三錫. 醫學六要.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32. Zhang H. Tushubian. Shanghai. Shanghaiyujichubanshe. 1992.  
章潢. 圖書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33. Zhai L. Jingluoquanshu(Jingluohuibian). Beijing. Zhongyiyujichubanshe. 1992.  
翟良. 經絡全書(經絡滙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2.
34. Qian CC. Huangdineijingtaisuxinjiaozheng. Beijing. Xueyuanchubanshe. 2006.  
錢超塵.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35. Ding GD. Zhubingyuanhoulunjiaozhu(shang).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2.  
丁光迪.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36. Zheng SQ. Yifayuantong.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3.  
鄭壽全. 醫法圓通.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37. Zhao XK. Yigua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2.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38. Zhou BD. Bencaosibianlu (Zengbuzhenbenyishujicheng4). Taipei. Shijieshuju. 1962.  
周伯度. 本草思辨錄(增補珍本醫書集成4). 臺北. 世界書局. 1962.
39. Zhu S. Pujifang(1-1). Seoul. Hanseongsa. 1981.  
朱輔. 普濟方(1-1). 서울. 翰成社. 1981.
40. Zhou Y. Cuiquzhaigao (Wenyuangesikuquanshu1254). Taipei. The Commercial Press. 1988.  
周瑛. 翠渠摘稿(文淵閣四庫全書1254). 臺北. 商務印書館. 1988.
41. Zhou XT. Sanzhichan.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2.  
周學霆. 三指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42. Zhou XH. Duyisuibi.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7.  
周學海. 讀醫隨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43. Chen NZ. Yixueshizaiyizhushi. Changsha. Huna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8.  
陳念祖. 醫學實在易注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8.
44. Chen NZ annot.. Tang ZH corr.. Shanghanlunqianzhubuzheng(Xuxiusikuquan shu987). Shanghai. Shanghaigujichubanshe. 2002.  
陳念祖 注. 唐宗海 補正. 傷寒論淺注補正(續修四庫全書98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45. Feng ZZ. Fengshijinnangmilu.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6.  
馮兆張. 馮氏錦囊秘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46. Hong WS. Jeonggyohwangjenaegyongso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47. Hong WS. Jeonggyohwangjenaegyongyoungchu.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48. Hua BR. Jiaozhushisijingfahui. Shanghai. Shanghaiweishengchubanshe. 1935.  
滑伯仁. 校註十四經發揮. 上海. 上海衛生出版社. 1935.
49. Zhao JS. Duizhongyishenzangpangguangjiepoudezair enshi. Chinese Journal of Information o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1. 18(9).  
趙建生. 對中醫腎臟膀胱解剖的再認識. 中國中醫藥信息雜誌. 2011. 18(9).
50. Zhang XX. Congniaoyedeshengchenglunpangguangyu baodeguanxi. Journal of Jiangxi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8. 20(2).  
張效霞. 從尿液的生成論膀胱與胞的關係. 江西中醫學院學報. 2008. 20(2).
51. Zhang XX. The Function Discrimination of Zang-fu Organs. Shando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Doctoral Dissertation. 2006.  
張效霞. 臟腑功能辨析.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52. Jin D. Neijingbaoziqianxi. Hebei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2. 14(5).  
金棟. 內經胞字淺析. 河北中醫. 1992. 14(5).
53. Tu WS. Tuinajuewei. Zhongyishijia. 2004 [Cited 2017 Apr 20]; Available from: URL: <http://www.zysj.com.cn/lilunshuji/tuinajuewei/684-8-1.html>  
塗蔚生. 推拿抉微. 中醫世家. 2004 [Cited 2017 Apr 20]; Available from: URL: <http://www.zysj.com.cn/lilunshuji/tuinajuewei/684-8-1.html>
54. Zhou YJ. Jinguiyuhanjingerzhu. Zhongyishijia. 2004 [Cited 2017 Apr 20]; Available from: URL: <http://www.zysj.com.cn/lilunshuji/fengshijinnangmilu/342-27-3.html>  
周揚俊. 金匱玉函經二注. 中醫世家. 2004 [Cited 2017 Apr 20]; Available from: URL: <http://www.zysj.com.cn/lilunshuji/fengshijinnangmilu/342-27-3.html>
55. The Electronic Version of Siku Quanshu (Wenyuange Edition). Hongkong. Digital Heritage Publishing Limited. 1997.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7.